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온라인 신청

특수고용직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1023만명 6조3000억 추석 전 지급 예정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24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지난 25일부터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지급이 시작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추석 전에 지금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입금한다는 계획으로,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지급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24일부터 접두사를 시작한다. 앞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20만명에게 각 5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전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관련 데이터가 이미 확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곧장 지원금을 입금하기로 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 중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한다. 2차 지

원금 신규 신청은 다음 달 12~23일 접수 한다. 소득 감소 상황 등을 확인해 11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전 1인당 100~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

## Q&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일문일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전 1인당 100~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



### 지급 대상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업종'에 150만원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지급



### 특별피해업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 됐나?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법, 범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직종 등, 휴업 또는 폐업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지원 응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 지원 불가능



### 추석 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 안내 → 24일 신청 → 25일 지급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  
24~25일 훌쩍제 신청, 2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짹수, 25일  
끝자리 훌수, 26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추석 전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는 어떻게 지급 하나?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 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계획.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 23만명으로 추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연말까지 비대면 홍보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 대학생 홍보대사가 넉 달 동안 비대면 홍보를 벌인다.

광주은행은 지난 22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발대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0기를 맞은 대학생 홍보대사는 연말까지 광주은행 브랜드 홍보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다.

송 행장은 "홍보대사들이 광주은행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2일까지 30명 규모 신입행원 원서접수를 마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종욱(기운데) 광주은행장과 10기 대학생 홍보대사 30명이 지난 22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광주은행 제공〉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33.24 (+0.65)	↓ 금리 (국고채 3년) 0.883 (-0.014)
↑ 코스닥 843.45 (+0.73)	↓ 환율 (USD) 1164.40 (-0.60)

## 광주·전남 7월 대출금 다시 1조대

광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1% 넘어 '전국 최고'

코로나19 정책대출에 수요가 몰리면서 광주·전남지역 7월 대출금이 또다시 1조원을 넘겼다.

광주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를 넘기며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7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대출금은 광주 9351억원·전남 3685억원 등 1조 3038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대출금은 올해 들어 3월 1조 895억원, 4월 1조 890억원, 5월 1조 6631억원 등 석 달 연속 1조원을 넘겼다.

특히 이 기간 광주 주택담보대출금은 3196억원으로,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8년 1월 이후 또다시 최고기록을 썼다. 전남 주택담보대출 226억원으로 전달(130억)의 2배 수준이었다.

전달 대비 광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9%,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서울(0.5%), 부산(0.6%), 대전(0.8%) 등 주요 도시 증가율이 1%에 못 미친 것과 대조됐다. 전남 증가율은 0.2%, 전국 평균(0.3%)을 밟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폐업 소상공인 20만명 50만원씩 지원

### 중기부, 장려금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도전 장려금은 4차 주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이다.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총 1000억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1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한 전용 사이트도 24일 개설

되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야만 신청·접수·교육 수강 등이 가능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을 끝낼 수 있으며,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폐업 신고자에게는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고, 이달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 일에서 11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 교육 등 프로그램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어도 지원 조건을 갖췄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p boxer@kwangju.co.kr